



고양동 호랑이굴 조사 전경

편마암지대 동굴서 선사시대 인류의 흔적 확인

‘고양동 호랑이굴’ 정밀발굴조사 성과 공개

글 김수현(고양시 학예연구사) 사진 문화유산관광과

학술자문회의의 광경



‘고양동 호랑이굴’은 예로부터 호랑이가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자연동굴이다. 현재 이 동굴은 덕양구 고양동 대자산 북동쪽 능선의 사면부 중턱에 위치하며 해발 고도는 약 168m이다. 고양시가 자연동굴인 ‘고양동 호랑이굴’을 발굴 조사한 계기는 약 3년 전인 2017년 12월에 새롭게 발견돼 조사된 ‘고양 도내동 유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유적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굴 조사된 유적으로 4,500㎡라는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구석기시대의 석기와 화살촉 등 4만 7,802점이 발견됐다. 유적은 인근에 위치한 연천 전곡리 및 파주 운정 유적과 비슷한 시기인 7만 년 전 중기 구석기 유적이자 한반도 최초의 석기 제작소 및 채석장으로 당시 한국의 고고학계를 들썩였던 커다란 발견이었다. 도내동 유적이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그동안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사 유적은 신석기시대의 ‘고양 가와지 범씨’에서 구석기시대의 ‘고양 도내동 유적’으로 그 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고양동 호랑이굴’은 고양시가 한반도의 선사문화가 시작된 대표적인 도시임을 증명하고 향후 시민을 위해 교육 및 역사자료

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 5월에서 9월까지 진행된 ‘고양시 선사시대 조사구역’에서 입지조건과 형태, 그리고 규모 등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자연동굴로 보고된 곳이다. 고양시에서는 2019년 11월에 ‘고양동 호랑이굴’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동굴 입구 15m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 한반도 최초로 편마암지대 동굴에서 선사시대 인류의 흔적을 새롭게 확인했다.

정밀 발굴조사 결과, 유적의 퇴적층은 지표에서부터 약 3m까지 연속되고 8개의 층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표부터 3번째 층까지는 자연퇴적층이며, 그 아래 70cm~1.3m에 해당하는 4번째 층은 역사시대 유물층으로 내부에는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자기, 도기편, 기와편 등이 소량 출토됐다. 그리고 바로 아래로 5번째 층인 약 1.3~2.4m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 뿔석기가 발견됐고 6~7번째 하부 퇴적층을 지나 가장 마지막 층인 8번째 층에서는 제4기 갱신세 퇴적층이 확인됨으로써 구석기시대의 문화층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5번째 층인 신석기시대 문화층이다. 여기에서는 신석기 중기에서 후기로 편년되는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빗살무늬토기는 약 100여 점이 출토됐는데, 대부분 토기의 몸체이며 입구와 바닥면도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문양은 단사선문, 어골문 등 다양한 문양이 시문됐다. 뿔석기는 맥암에서 석영을 채취하거나 강가의 자갈을 채집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종류는 망치돌, 격지, 밀개 등이다. 이와 함께 편마암으로 만든 신석기시대 농경도구인 굴지도 1점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뿔석기의 경우 발굴조사 초기에는 구석기시대의 제작된 석기로 보았으나, 현재는 신석기 문화층이 교란이 없으며, 가장 마지막 층에서 안정된 구석기 문화층이 발견됐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교란이 없는 신석기 문화층의 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편마암지대 자연동굴로는 한반도 최초로 ‘고양동 호랑이굴’에서 선사시대 동굴유적이 새롭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기존에 알려진 선사시대 동굴유적은 제천 점말동굴, 단양 금굴, 정선 매둔동굴, 영월 연이굴, 청원 두루봉동굴 등으로

모두 석회암지대에서만 확인됐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된 선사시대 동굴로서도 그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 ‘고양동 호랑이굴’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선사시대 인류의 흔적은 고양시를 뛰어넘어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획기적인 사건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진행된 발굴조사는 동굴유적에 일부인 1/10만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즉, 동굴 내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그 규모와 사용 시기를 밝히기에는 자료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8번째 층에서 구석기 문화층이 확인됐기 때문에 향후 내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면 동굴의 규모와 실제 운영 시기를 보다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연차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그 성격과 사용 시기들이 명확해져 고양시의 ‘고양동 호랑이굴’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선사유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신석기시대 뿔석기